



오픈도어 북한 기도회

2020년 8-9월



기도제목 1.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8월 장마로 인한 수해피해가 심각합니다.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만 9296정보 면적의 논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고, 총 1만 6680여 세대의 살림집과 630여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 혹은 침수됐다고 공식 보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외부 지원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고 코로나19 및 수인성 질병과 식량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북한 수재민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2.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알려지기 이전부터 북한에는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도깨비병'이 퍼지고 있었고, 그 증상이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북한 내에 코로나19가 상당히 퍼져 있다는 정황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의료적 지원이 공급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한 도움의 문도 함께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3.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내에는 그루터기 신자들 및 제 3국에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과 그 가족, 그리고 당국에 적발되어 추방되거나 수감된 성도들 및 그 후손 등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박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성도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 의료적 상황, 그리고 강화되어가는 통제 속에서 성도들이 안전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국경이 막혀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사역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본 선교회에서는 북한 성도들에게 절실한 영육 간의 필요를 지원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지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선교사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 세계기독교박해지수에서 북한은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북에 억류 또는 수감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조선족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철폐와 갇혀있는 성도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기도제목 5.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현장의 긴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능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적극적 사역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사역의 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탈북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올해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국 탈북민 수는 135명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통제는 탈북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외진 농촌지역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서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북한 여성들, 그리고 각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6. 대북 라디오 선교의 지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통일부 당국자가 8월 11일 외신과의 미팅에서 '북한이 한국 인권 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문제 삼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 북한 인권 증진 등 혜택 뿐 아니라 한국사회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이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현재로서는 (민간) 대북 방송 관련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추가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가 없었다고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의 답변은 대북 라디오 방송이 상황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 당국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달하는 라디오 방송 선교 사역 입장에서는 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제목 6. 대북 라디오 선교의 지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물리적 한계가 있는 북한 사역에 라디오는 복음을 북녘을 향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대북 복음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라디오 사역이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인한 중단 없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7.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제약이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선교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련 가운데 교회들이 자칫 선교의 열정을 상실하고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단순히 한 때의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갱신과 지경의 확장이라는 축복으로 승화되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적 평화통일의 소망의 비전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교현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통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